

문화

# 36년 경희극회 일상 속 소중함 더 없이 녹여내다

경희극회 70회 정기 공연

---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경희극예술연구회(경희극회)’의 70회 정기공연이 이달 4일부터 7일 까지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상연됐다. 이날 경희극회는 “같이!” 이들이 방학 내내 가족같이, 아니 어쩌면 가족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준비해온 공연을 선보일 시간이다.

'일상의 소중함'을 주제로 노희경 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각색하여 공연했다. 우리학교 유일의 연극 중앙동아리인 경희극회는 36년간 쉬지 않고 매년 2번씩 정기공연을 올려왔다. '연극으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는 그들, 경희극회의 하루를 따라가 보았다.

공연 시작을 앞둔 7시 경, 날이 어둑해질 무렵 소극장에서부터 시작된 관객의 줄은 계단을 따라 학생회관 문 앞까지 이어졌다. 친구 혹은 연인과 함께 더러는 가족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보기 위한 발걸음을 옮겼다. 200여 명 정도가 들어 올 수 있는 관객석이 가득 메워지자

학생회관 계단을 한 층 올라가 소극장의 문을 여니 경희극회의 배우들이 모여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무대 위에 열댓 명이 원을 그리고 서서 발성연습에 한창이다. “밥 안 줘. 날 아주 굶겨 죽여라. 이년 이 빌어먹을 년.” 시어머니 역을 맡은 고유진(기계공학2014) 양이 대사를 읊으며 목을 가다듬는다. 옛된 얼굴로 양 칼진 할머니 목소리를 내는 모습에 소극장 여기저기서 웃음기가 감돈다. 차례로 연습을 마친 배우들은 경희극회의 노래인 ‘극회가’를 부르며 발을 굴린다. “기운 있고 헤매는 도끼흔데여 주소  
하게 했다. 이윽고 무대에 조명이 들어왔다.  
황 회장의 인사말이 끝나자 관객석에서는  
한껏 들뜬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신에게 연극의 울림이 전해졌다  
면 주변을 한 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감  
사하다’고 메세지를 보내보세요.”

같은 시간 구내 위단, 대단과 고장이 걸어 놓인 어둠 속에서 배우들은 공연을 앞두고 감정을 정리하고 있었다. 전인기 군은 간간이 밝혀 둔 촛불 근처에 앉아 대본을 읽어 내려갔다.

학 2012)군은 분장담당인 김소현(화학공학 2016) 양의 손길로 세월을 더했다. 파운데이션을 머리카락에 칠해 희게 만들고 어두운 색의 새도로 전 군이 웃을 때 지는 굴곡을 따라 주름을 그렸다. 그가 맡은 역할은 일평생을 밖에서 고군분투하느라 정작 가족에게는 따듯한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아버지라 한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을 읽으며 저희 아버지를 많이 떠올렸다.” 이번이 경희극회의 이름으로 오르는 3번째 공연인 전 군은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어느 때보다 많은 연기적 배움을 얻을 수 “3막 6장에서 아내가 숨을 거두기 전, 자신이 언제 보고 싶을 거 같은지 묻는다. 그 질문에 정 박사는 일상 모든 순간이 그것이라고 고백한다. 가장 기대가 되는 대사이다.” 배우가 꿈이라는 전인기 군은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났다. 그가 연기한 정 박사는 가족에게 늘 무뚝뚝하고 권위적이다. 병세가 짙은 아내에게도 정 박사는 여전히 무심하다. “오줌소태가 영 낫지 않는다”며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그는 허튼소리 말라는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는 현관문 앞에서 구두에 발을 넣는데 열중한 채 밀한다.

“그런 건 약 먹어도 나아. 뭐 한다고 병원



까지 와. 동네 약국 가.” 그랬던 정 박사는 동료의사에게 아내가 자궁암 말기라는 사실을 전해듣게 된다. 정 박사를 연기하는 전 군의 표정은 후회로 일그러졌다. “내가 이 나이에 남의 병원에서 초라한 월급쟁이 의사질 하는 게 부끄러워 여편네 아프다는데 병원도 오지 말라고 한 놈이야.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 가서, 죽는다. 너 잘 죽어라, 그래 ”그의 고함에 이제 어떠한 권위도 느껴지지 않는다. 떨리는 말끝에 흐느낌이 묻어나올 뿐이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정 박사는 마음속에 벗장처럼 걸려있던 말을 하다씩 꺼냈다. 정 박사는 안치환의 ‘내가 만일’이라는 곡을 아내 앞에서 노래했다.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 들고 싶어.”

첫 소절을 부르는 정 박사의 목소리는 일평생 한 번도 소리 내어 노래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어색하다. 그러나 마지막 소절은 아내에게 꼭 해주고 말이었다는 듯이 힘주어 부른다. “오늘처럼 함께 있음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이런 나의 마음을”

공연이 끝나고 소극장에 환하게 불이 켜지자 관객들은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지 못했다. 2시간 가량 되는 연극을 보며 마음껏 웃고 울 수 있었다. 관객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배우들에게 박수가 길게 이어졌다. 전인기 군은 “오늘이 마지막 공연이라 정 박사라는 역에 더 감정이입해서 연기했다”며 “두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맘씀 후련하다”고 말했다.

관객으로 온 영석 역 이주훈(정보전자신소재학 2012)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연기 를 보러왔던 것인데 연극에 큰 감동을 받았 다”며 “가족을 다루고 있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공연을 마치고 관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기특함이 묻어나왔다. 같이 온 이 군의 누나는 “연극 내내 팔 역에 감정이입을 하며 볼 수 밖에 없었다”면서 어머니의 팔을 꼭 잡으며 말한다.

“어머니에게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듣다”

이날 30여 명의 경희극회 공연 팀은 이날 ‘일상 속에서의 소중함’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물결하게 관객들이 가슴을 던졌다.

무대감독인 김우재(산업경영공학 2012)  
군은 공연을 마무리 하며 관객들에게 전  
했다.

“당신에게 연극의 울림이 전해졌다며 주변을 한 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들은 ‘너무도 무뎌웠던 올해 여름, 정말 아름답게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